

1년간의 값진 도쿄 필드 워크 시간

박유진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석사과정

들어가며

본 현지 조사는 “일본 내 한류의 위상과 자이니치의 정체성 교섭”이라는 석사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자는 해당 연구를 위해 도쿄대학교 대학원 정보학관에서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1년간의 교환 유학을 결정했고, 문헌과 미디어로만 접하던 일본 현지 한류의 열기를 체감함에 이어 연구 대상인 자이니치 청년 세대를 인터뷰하기 위해 직접 자이니치 커뮤니티에 참여해왔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연구소 현지조사 지원 사업>의 지원은 유학 초기에 현지에서 자리를 잡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이 때 직접 뛰어다니며 얻어낸 경험들은 유학 후기 본격적인 인터뷰를 실시하며 인터뷰이와의 라포(Rapport)를 쌓는 과정에 있어 큰 자양분이 되었다.

일본 내 한국 문화의 ‘일상화’

연구자는 그동안 일본 내 한류의 확산 과정에 큰 관심을 가지고 그 흐름을 지켜봐왔다. ‘겨울연가’가 이끈 2000년대 초반의 ‘1차 드라마 한류’부터 동방신기, 카라 등이 이끈 2010년대의 ‘2차 K-pop 한류’에 이어 2010년대 후반의 ‘3차 한류’ 시기에는 일본 10대, 20대 여성들이 SNS에 치즈 닭갈비, 치즈 핫도그 등의 한국 먹거리부터 한국 뷰티, 한국 패션 등을 확산하며 더 넓은 소비의 영역을 아우르게 되었다. 한국의 문화가 일본 사회에서 ‘붐’, ‘유행’을 넘어 ‘일상생활’까지 스며든 것이다. 2020년대 초반의 ‘4차 한류’ 이후로는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쓰’ 등 한국 드라마가 일본 넷플릭스 10위권의 절반을 차지하고, 방송에는 J-pop 아이돌보다 K-pop 아이돌이 더 많이 등장하는 등 일본에서 더 이상 한국 문화는 ‘한류’가 아닌 ‘일상적인 대중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림-1] 발 디딜 틈 없는 한인타운 ‘신오오쿠보’의 모습



현지에 1년간 체류하며 접한 일본 사회는 문헌과 매체로 접하던 위 내용 그대로였다. 도쿄 대학의 축제를 장식하는 K-pop 커버 댄스팀의 K-pop 댄스 메들리, 도심의 대형 쇼핑몰에서 울려 퍼지는 K-pop과 늘어선 마네킹마다 붙은 ‘한국 스타일’ 팻말, 한국 음식점과 한국식 카페를 찾는 일본인 젊은이들로 발 디딜 틈도 없이 붐비는 한인타운 ‘신오오쿠보’ 등을 통해 미디어에서 조명되는 K-pop과 한국 드라마, 영화 등의 콘텐츠의 인기를 실감함은 물론, 현지인들의 일상 생활 속에 한국 문화가 자리 잡고 있음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차별의 대상이 부러움의 대상으로

이렇게 한국 문화가 일상화되고 심지어 ‘한국인이 되고싶어(韓国人になりたい)’라는 해쉬태그

까지 SNS에서 유행하는 와중, 식민지 시절부터 일본에 건너와 ‘한국계’라는 이유만으로 겪는 차별을 피하기 위해 본명을 감추고 일본명인 ‘통명’을 쓰고, 한국어가 아닌 일본어만 사용하고, 취직과 진학 등에서 각종 차별을 겪어가며 버텨온 자이니치 민족의 3, 4세 청년 세대는 어떤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을까. 특히 한류를 일본 청년 세대와 함께 소비하는 이들이 어떤 정체성의 변화를 느끼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고자 직접 자이니치 커뮤니티에 뛰어 들었다.

1년간의 값진 필드 워크 시간

우선 일본에 건너간 4월부터 교환학생 상대교인 도쿄대학교의 지도교수님께 현지의 자이니치 교수님을 소개받거나 자이니치 관련 수업들을 수강하며 이해도를 넓혔다. 또한 도쿄대에서 연구중인 자이니치 혹은 한일혼혈, 한국학을 연구하는 대학원생들과 수업에서 만나 연구 주제를 공유하고, 개인적으로 알게 된 자이니치 대학원생들과 함께 ‘자이니치 공부회’를 결성해 매달 연구 주제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았다.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이니치 개인들을 소개받아 찾아다니며 최대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자이니치의 이야기를 듣고 추후 진행할 정식 인터뷰를 위한 이해도를 증진시켰다. 특히 이 과정을 통해 인터뷰를 방법론으로 삼는 연구자로서의 태도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같은 자이니치라고 할지라도 국적과 집안 배경, 출신 학교에 따라 말투나 사고방식, 사용하는 용어도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아 실례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했기 때문이다. 추후 인터뷰이 모집 문건 작성 당시 이 부분에 특히 주의를 기울였는데, ‘본인들을 충분히 배려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는 피드백을 통해 이를 더 실감할 수 있었다.

7월부터는 여러 자이니치 관련 행사를 물색해 참가하며 좀 더 해당 커뮤니티와 가까워지려 노력했다. 특히 본인의 자이니치로서의 정체성을 랩으로 표현하고, 이를 워크샵을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전파하는 래퍼 ‘FUNI’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워크샵에 참여한 자이니치 청년들이 스스로를 랩으로 표현하는 내용을 들으며 연구에 필요한 이해도를 높이고, 추후 별도의 인터뷰도 요청할 수 있었다. 또한 2023년 9월은 자이니치 학살사건이 일어난 관동대지진의 100년째 되는 시기로, 진상규명을 위한 시위나 관련 행사가 도쿄 곳곳에서 열렸기에 해당 현장에 방문하여 자이니치들이 겪어온 고난의 역사를 돌아보며 투쟁의 열기를 실감하기도 했다. 그리고 단지 이 사람들의 인터뷰로 논문만 작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드 워크를 통해 이 커뮤니티 전체를 이해하고 그들의 정체성이 어떤 역사 속에서 변화해왔는지 이해하는 것이 연구자로서 얼마나 중요한 무게인가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그 결과 유학 후기 정식 인터뷰에 돌입하여 그동안 쌓은 자이니치와 해당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원활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스스로가 느끼는 문제의식을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접근 방식이 쉬운 ‘영상’이라는 매체화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동시에 자이니치의 목소리가 좀 더 세상에 공명할 수 있기를 바라며 유학 초기 인연을 맺은 자이니치 래퍼 ‘FUNI’씨의 활동과 생각을 담은 단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했다. 필드 워크 기간이 단지 논문 작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좀 더 의미 있는 과정이 되고자 노력한 이 모든 과정의 바탕에는 유학 초기 아시아 연구소의 현지조사 지원 사업의 도움이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린다.

[그림-2] 단편 다큐멘터리 ‘FUNI’ 캡처



2023년 9월 1일.
관동대지진 자이니치 학살사건
진상규명 시위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래퍼 FUNI